



본회 업무 6개분과 분리, 임원별 책임 회무 실시

- 임원별 업무분장, 회무 수행 극대화 기대 -



본회는 지난 10월28일 본회 사무실에서 제 6차 이사회를 갖고 회무 수행 극대화를 위해 임원별로 주요 업무를 분장, 임원의 회무참여를 의무화하여 전체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.

이에 본회는 주요 업무를 ▲정책·제도 ▲대외협력 ▲연구·기술 ▲운영·재정 ▲홍보·교섭 ▲조직·회원 관리 등 총 6개 분과로 나누고 각 분과별로 담당 임원들을 배정했다.

본회 김수근 회장은 “본회의 각종 업무들을 각 임원별로 배정, 업무의 전문성을 배양하는 동시에 원활한 회무수행을 실시코자 임원 업무분장을 실시했다”고 배경을 설명한 후 “각 분과별 담당 임원들은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해 본회 회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”고 주문했다.

앞으로 각 분과들은 당면 활동과제를 수립하여 책임 회무를 실시하게 되며 분과별로 월 1회 정기회의를 실시, 활동상황을 점검하게 된다.

한편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임원들은 총 2천3백여만원의 협찬금을 각출하고 이 중 1천만원을 사무실 구입 대출금(경동프라자 426호) 상환에 사용키로 결정했다. **양육인**